

幼蟲時期에 土壤生活을 하는 蠟翅目벌레亞科
(딱정벌레目: 잎벌레科)에 관한 分類學的 研究

李鍾殷, 朴眞影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幼蟲시기에 土壤 속에서 寄主植物의 뿌리를 加害하며 生活하는 습성을 가진 蠟翅目벌레아과(Eumolpinae)에 속하는 유충은 soil dweller insect로 더 잘 알려져 있다. 蠟翅目벌레아과는 우리나라에 총 4족 17속 2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해충을 많이 포함하는 분류군으로도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 금록색잎벌레 *Basilepta fulvipes* (Motschulsky), 경기 잎벌레 *Demotina modesta* Baly 그리고 사과나무잎벌레 *Lypsthes ater* (Motschulsky)의 3종에 관한 분류학적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양생활을 하는 이들 유충의 공통적인 형태적 특징은 1령 유충의 mesothorax와 metathorax에 난각과쇄기(egg burster)를 각각 1쌍씩 가지고 있으며, 유충 발육의 모든 시기를 토양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색깔도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tubercle도 매우 연약하다. 또한 tergite와 antenna의 발육이 미약하고 frontal suture의 발육도 매우 미약하며, 몸에는 감각모(sensory setae)가 산재하고 있다.

잎벌레科중에서는 톱가슴잎벌레亞科(Synetinae)와 동일한 生態的地位를 점하고 있으며 head capsule, mandible, labial palp, claw, spiracle, setal arrangement 등 形態的 類似性도 상당부분 共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